

# 전남교육청, 영역단위 학교공간혁신 직무연수

### ‘삶을 담은 학교공간 만들기’ 방향·절차 공유

### 학교별 3억 원 사업비 지원받아 사용자 참여설계

전남 도내 영역단위 학교공간혁신 사업 학교의 교직원들이 모여 미래교육 공간을 만들기 위한 방향과 절차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지난달 22일~24일 전남교육연수원에서 2021년 영역단위 학교공간혁신 12개 사업 대상 학교의 교장, 행정실장, 담당교사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삶을 담은 학교공간혁신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들 사업 학교는 학교별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용자 참여설계를 통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의견을 담아 설계와 시공 단계를 거쳐 2022년 2월 즈음 개성있는 미래교육공간을 선보인다.

연수의 첫째 날은 ‘미래를 위한 건축’을 주제로 학생의 건강과 미래사회를 위한 친환경 건축의 중요성을 비롯하여 학교공간혁신 사업 방향과 공간의 변화 유형, 사용자 참여설계의 구체적인 사례 안내를 받았다.

둘째 날은 학교장, 교사, 행정실장 별로 나누어 각각의 역할과 주의할 점을 토론한 뒤 건축전문가인 축진자와 함께 만들어보고 싶은 공간을 입체로 표현해냈다.

셋째 날은 학교공간혁신 행정처리와 예산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있었다.

연수에 참가한 교직원들은 “학교 공간혁신은 어느 누군가 혼자 생각과 노력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협력과 소통으로 만들어가고, 미래교육을 위한 고민과 교육과정의 변화가 함께 되어야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포두중 정운영 교장은 “나의 집을 만들듯 학생들의 삶을 담은 학교공간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를 받은 학교들은 3월 중 중간건 축진문가인 축진자를 용역 계약한 뒤 2021



전 학교공간혁신 영역단위 사업을 본격 추진 하게 된다. 김정환기자



## 고흥 전남자율혁신학교, 업무담당자 협의회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희)은 지난달 25일 고흥 전남자율혁신학교 업무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고흥교육지원청은 전남자율혁신학교를 공모하여 초 6교, 중 4교를 지정 운영한다. 2021학년도 전남자율혁신학교 운영의 키워드는 ‘선택’과 ‘집중’이다. 이전 혁신학교가 민주적 학교 문화조성,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등 필수 과제 중심의 운영 방식을 안내하였다면, 2021학년도에는 ①존중과 협력의 학교문화 형성 ②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 ③공동체 평화 프로젝트 ④학부모 ‘지역사회와 협력관계 구축’의 4개 과제 중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집중과제를 선택하고 실천하도록 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2021학년도 업무 담당자와 축진자를 위촉하여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의 큰 방향을 공유하고, 학교혁신 고민, 학교별 운영 중점사항 및 지원 요청사항 등을 함께 나누는 자리였다.

이런 협의회에 참여한 녹동초 안동철 선생님은 “나에게 혁신은 문화이고, 아이들 앞에서 힘을 갖게 해주는 장치라고 생각한다”며 “우리학교 구성원 모두가 혁신 문화에 대해 공유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축진자로 참여한 두원초 김문 선생님은 “혁신은 과정”이라며 “고흥 관내 학교들이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어렵지만 꾸준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자리여서 좋았다”고 소감을 이야기 하였다.

고흥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만들어놓은 세상의 변화 속에서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학교문화의 혁신, 지역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기자

## 무안교육청, 무안-곡성 마을학교활동가들의 만남 가져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학생들 교육 위해 상호 소통 및 협의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란)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5일 곡성군 마을활동가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곡성마을교육공동체가 곡성교육지원청과 곡성군청,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선순환적 지역교육생태계를 구축, 지역 인구감소 위기를 교육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 등을 청취하였고, 무안군의회

의원, 무안군청 및 무안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계자도 참석,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상호 소통 및 협의하는 진솔한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무안교육지원청 및 무안군청은 무안군의회 이정은 의원 발의를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조례(안) 상정(3월)을 앞두고 있으며, 중간지원조직 (가칭)무안군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 구

축을 위해 민·관·학이 함께 첫걸음을 내딛는 시점에서 곡성군의 사례는 한층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김란 교육장은 “무안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구축과 공청회를 통한 민·관·학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제정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 광주 월봉초, 새학년 준비기 원격·등교수업 운영 내실화 박차

### 쌍방향 화상수업 서비스 사용자 교육 연수



월봉초가 2021년도 새학년 준비기를 가져 원격 및 등교수업 운영 내실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월봉초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2021학년도에는 보다 안정

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2월 18일 ‘교직원 만남의 날’ 운영을 시작으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2월19일 월봉초 김선미 연구부장 교사는 광주시교육청에서 배부한 노트북을 활

용해 ‘쌍방향 화상 수업 서비스 사용자 교육 연수’를 진행했다.

연수를 통해 새로 바뀐 e-학습터의 기능과 화상수업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직접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지난 2월23-25일 학년을 나눠 교과서 및 학습꾸러미를 배부했다. 미리 제작한 에코백에 배움공책과 교과서를 담아 학생들에게 배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월봉초 신은영 교장은 “앞으로 원격수업 전환, 원격·등교수업 병행 등 다양한 학습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 월봉초는 이러한 상황에 미리 대비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3월2일 1~6학년 학생들 모두 담임 선생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 기쁘고, 매일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날들이 계속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조인호기자

